

# 예기 *it*의 지시적 지위

이 생근

(한국대학교)

Lee, Saeng-Keun. 2005. The Referential Status of Anticipatory *i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3), 125-144. This paper aim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referential status of anticipatory *it*, an issue commonly used by modern grammars but not always given a clear, consistent account. To do so, it first examines some of the problems with the previous analyses which deal with anticipatory *it* as a semantically empty expletive, and then it presents some evidence to show that anticipatory *it* has some referential force which can establish a referential link with a clausal constituent in the previous context. Thus, anticipatory *it* in this paper is analyzed as allowing for both anaphoric and cataphoric reference. Not only can this perspective of anticipatory *it* account for various types of *it*-extraposition including one with an elided extraposed clause, but it can also capture obvious similarities between the *it* in extraposition and right-dislocation construction.

**주제어(Key Words):** anticipatory *it*, referring *it*, prop *it*, *it*-extraposition, anaphoric/cataphoric reference, right-dislocation

## 1. 들어가기

영어 대명사 *it*는 지시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조응적(anaphoric)인 것과 상황적(situational)인 것으로 세분된다. 조응적 *it*란 (1a)에서처럼 *it*가 그것과 동일지시되는 선행사 NP를 문장내에서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 반면, 상황적 *it*는 (1b)에서처럼 *it*가 문장내의 지시대상이 아니라 언어외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a. I took *the book* from the table and placed *it* on the shelf.  
b. Isn't *it* rather nice?

(1b)는 쇼핑하면서 물건을 고를 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이 경우 *it*의 지시는 문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된다.

한편, *it*는 어떤 문장내적인 지시나 언어외적인 지시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지시 *it*(*prop it*)<sup>1)</sup>는 일반적으로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지시 *it*는 특히 시간, 거리,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비지시적) 주어로 사용된다(Quirk *et al.*, 1985: 348-49). 비지시 *it*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sup>2)</sup>

- (2) a. *It's 5 o'clock.*
- b. *It's raining again.*
- c. *It's a bit late.*

대명사 *it*를 기본적으로 지시 *it*와 비지시 *it*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면 소위 ‘예기 *it*’(anticipatory *it*)<sup>3)</sup>, 즉 (3)과 같은 *it*-외치구문에서 문장을 도입하는 *it*의 지시적 속성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 (3) a. *It is essential that the software be revised.*
- b. *It will be necessary to rebuild the economy.*
- c. *It is fun being a golf supporter these days.*

대부분의 문법 기술들이 예기 *it*의 본질적으로 예전하는 특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통사적, 의미적(지시적) 속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상당히 다르다.

이 논문은 *it*-외치(*it*-extraposition) 구문에서 예기 *it*의 정확한 통사적 속성과 의미적(지시적) 속성을 규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절

1) ‘Prop *it*’는 Quirk *et al.*(1985: 347-48)의 용어다. 이것 대신에 ambient *it*, weather *it*, dummy *it*, empty *it*, expletive *it*, pleonastic *it*, impersonal *it*, introductory *it*, non-referring *it* 등이 사용된다.

2) 비지시 *it*는 또한 주어 이외의 다른 기능으로 나타나는데 (i)와 같은 관용표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 (i) a. I can't make it tomorrow.
- b. You wouldn't have enjoyed it.
- c. She insisted on going it alone.
- d. I'm just taking it easy.

3) ‘Anticipatory *it*’는 Quirk *et al.*(1985: 1391)의 용어로 이것 대신 preparatory *it*, provisional *it*, introductory *it*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에서는 전통문법과 변형생성문법 등에서 논의된 예기 *it*에 대한 기준의 다양한 분석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조명한다. 3절에서는 예기 *it*가 의미가 없는 허사(expletive)가 아니라 지시력을 갖는 지시대명사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다. 4절에서는 외치절의 통사적 지위를 밝힌다. 외치절이 보충어가 아니라 우측탈구된 요소라는 우리의 분석은 결국 예기 *it*의 지시적 분석을 지지해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요약과 더불어 우리의 분석이 갖는 설명력과 함축적 의미를 언급한다.

## 2. 이전 연구와 그 문제점

### 2.1. 예기 *it*의 비지시적 분석

예기 *it*에 대한 분석은 주로 외치구문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외치구문의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Rosenbaum(1967)이다. 그에 따르면 외치구문 (4)는 기저구문 (5)로부터 도출된다.

- (4) It surprised us that Bill left early.
- (5) It that Bill left early surprised us.

다시 말해서, *it*는 내포절 *that Bill left early*의 대형태(pro-form)이고, 주어 NP-마디 밑에 *that*-절과 *it*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저구조의 VP는 동사 *surprised*와 목적어 NP *us*로 구성된다. 기저구조 (5)에서 도출된 (4)는 내포된 *that*-절을 주어 NP로부터 추출하여 그것을 VP 뒤에 놓이도록 하는 변형규칙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방법에서 내포절은 대명사 *it*의 후위수식어로 취급된다. 이에 상응하는 비외치문 *That Bill left early surprised us*는 주어 NP의 관할을 받은 *it*와 *that*-절 중에서 대형태 *it*를 삭제함으로써 생성된다. *It*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적으로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외치이동은 똑같이 인정하지만 Rosenbaum(1967)의 분석과 다르면서 특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Seppäen *et al.*(1990: 756)의 설명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it*-외치구문은 주어를 문미 위치로 이동하고 그 주어 자리는 비어둠으로써 도출된다고 본다. 외치구문의 기저구조를 *that*-절이 주어 자

---

4) Rosenbaum은 이러한 *it*의 비지시적 분석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Rosenbaum (1968)에서 *it*의 지시적 분석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에 오는 구조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Rosenbaum(1967)의 분석과 다르다. 그리하여 외치이동이 적용된 결과는 (6a)와 같은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6b)와 같은 주어가 없는 문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Langacker, 1974: 11).

- (6) a. \_\_\_ was surprising that Peter was ill.  
 b. \_\_\_ was raining very heavily.

그 다음에 ‘가주어 *it* 삽입 규칙’(dummy *it* insertion)이 적용되어 이 두 문장의 표면구조가 도출되는데 이것은 이 두 구조에 있는 *it*를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Seppänen *et al.*도 또한 예기 *it*를 비인칭(날씨) *it*처럼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또한 예기 *it*를 ‘가주어’(dummy subject)라고 지칭한 Jespersen(1949, VII: 144)에 의해 언급되었고, Biber *et al.*(1999: 660)과 Huddleston & Pullum(2002: 1481-2)도 같은 맥락을 견지했다.

결국 외치이동 분석의 주된 통사적 효과는 내포절이 갖는 주어 기능을 없애는 것이다. 대부분의 절에서 통사적으로 주어 기능을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형은 비어있는 주어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시가 없는) 허사 주어의 삽입이 필수적이다.

## 2.2. 비지시적 분석의 문제점

먼저 예기 *it*가 비지시 *it*와 동일하다는 그들의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Seppänen *et al.*(1990: 753-54)은 지시관계(referentiality)에 의한 해석의 취약점을 지적한다. 이리하여 만약 *it*가 지시적이면 강세가 주어진 대명사 *that*로 대체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이 *that*는 특히 문장 선행사와 함께 사용된다. 이것은 실제로 (7a)에서처럼 선행사-조응어 쌍으로 되어있는 경우와 (7b)에서처럼 오른쪽으로 탈구된 구조를 갖는 경우이다. 그러나 (7c)에서처럼 외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7) a. I shut all the windows but *it/that* didn't help.  
 b. *It/That* won't be easy - to get a taxi to the station.  
 c. *It/\*That* won't be easy to get a taxi to the station.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 도입(introductory) *that*의 경우에는 외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러한 구문들은 Montgomery(1989)가 보였듯이 즉흥적으로 발화된 구어에서 명백하게 존재한다. 미국 구어의 45시간 분량의 말뭉치(corpus)에서 *it*-외치의 예는 고작 14개가 발견된 반면 소위 *that*-외치라고 부르는 것의 예는 31개가 발견된다. 그의 *that*-외치에는 또한 모문절과 보문절간에 휴지가 있는 구문들과 이들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 오른쪽 탈구가 포함되지만 이것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 나머지는 Seppäen *et al.*의 용어로 외치의 분명한 경우들로 취급되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대체 테스트(substitution test)는 그러므로 *it*가 지시적 특성이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예기 *it*의 지시력의 부족을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주장으로 *it*를 *they* (또는 *those*)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Sepäen *et al.*, 1990; Kaltenböck, 1999).

- (8) 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mathematics and to speak at least one foreign language.
- b. \**They* are important to understand mathematics and to speak at least one foreign language.

만약 외치구문에서 예기 *it*가 뒤에 오는 종속절을 순행(cataphorically) 지시한다면 (8)에서처럼 두개 이상의 종속절이 관련될 때 그 *it*는 *they*로 바꾸어 쓸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8b)가 보여주듯이 비문이 된다.

(8b)의 비문법성은 그러므로 *it*가 지시력이 없다고 주장하도록 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것은 (8b)가 외치의 예로 쉽게 고쳐질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되는 관찰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다시 말해서 Sepäen *et al.*은 *they*를 *it*의 복수로 취급하고 명백하게 지시적인 *they*를 포함한 다중 외치구문의 비문법성으로부터 *it*-외치가 문법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it*는 비지시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it*가 일반적으로 단일 선행사를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하더라도, 많은 경우에서 단수/복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It's raining*에서 *it*가 단수를 지시하는지 아니면 복수를 지시하는지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경우에서, 비록 *it*가 단수동사를 취하고 그리하여 단수이지만 그것의 지시적 값은 단수도 아니고 복수(multiple)도 아니다<sup>5)</sup>.

---

5) *It*의 지시적 특성이 단수에 가깝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Ranger(2003) 참조.

단수/복수간의 구별이 거의 타당하지 않은 다른 예로는 *it*가 복수 선행사를 갖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9) A: When you get the winnings, put *it* on The Slob in the eight-fifteen.

B: What, all of *it*?

A: All of *it*.(LOB 5)

- (10) a. Then the shipyards sank without trace, and *it* was three years on the dole.(BNC GOE 36)

b. I went upstairs to see the bloke in my bed and I thought this is lucky *it* was three bloody dogs in your garden when I went out the other night.(BNC KBE 2946).

다시 말해서 *it*는 단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단수, 복수 어느 것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그 대조는 중요하지 않다.

*They*가 문장 선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 (11)과 같은 예문으로부터 (8b)가 문법적이어야 한다는 주장(Seppäen *et al.* 1990: 754) 또한 설득력이 없다.

- (11) *To speak French and to understand mathematics* are both important, but *they* are not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왜냐하면 그러한 *they* (*those*)는 (12)에서 보듯이 지시적 *that* 대신 쓸 수 없고, 그리하여 *that*의 복수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Kaltenböck, 2003).

- (12) Don likes *to ski* and *to skate*. Steve likes *that/\*them*, too.  
(Channon, 1980)

만약 명백히 지시적인 대명사로서 *that*가 *they*나 *those*로 대체될 수 없다면 (8b)와 같은 예문에서 *they*의 비문법성으로부터 *it*가 지시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등위절 테스트는 예기 *it*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Morgan, 1968: 84; Seppäen *et al.*, 1990: 757). 이 테스트는

*it*가 두 번 나타난 (13)과 (14)와 같은 등위구조에서 즉, 하나는 예기 *it*이고 다른 하나는 비인칭(비시지적) *it*일 때 나중에 나타난 *it*(*it+be*)는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 (13) a. *It was 2 o'clock, and [it was] still impossible to know when they would come to relieve us.*
- b. *It is snowing, and [it is] rather difficult to go on driving.*
- (14) a. *At ten it was impossible to see anything, and at noon [it was] so dark that you needed a candle if you wanted to read.*
- b. *It is difficult to continue and [it is] clearly too late for us to return.*

실제로 이러한 등위관계 사실들은 예기 *it*와 비지시 *it*가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 유사하지 않으면 두 번째 *it*의 생략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등위절 테스트가 예기 *it*와 비지시 *it*간의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예기 *it*가 의미가 없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예기 *it*가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등위절 테스트를 사용한 경우(Bolinger, 1977: 82-83)도 있다(3.1절 예문 (15) 참조). 이리하여 등위절 테스트가 예기 *it*와 비지시 *it*가 어느 정도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기 *it*의 지위에 대해서 내리도록 하는 결론은 비지시 *it*의 분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 2.3. 예기 *it*의 지시적 분석

예기 *it*를 지시대명사로 보는 견해는 Zandvoort(1962)를 포함한 전통문법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은 예기 *it*가 지시대명사 *it*처럼 어떤 명사나 명사 상용어를 분명하게 표상한다(represent)고 주장한다. 이와 동일한 입장은 몇몇 변형생성 문법가들에 의해 취해진다. Emonds(1970)는 *It was a pity that John was late*와 같은 문장에서 대명사 *it*는 동사 뒤의 주어절과 동일지시된다고 분명하게 기술한다(Seppläen et al., 1990).<sup>6)</sup> Hoekstra(1983) 또

---

6) Chomsky(1981)는 인상구문의 기저구조로 상위동일지표(예컨대, '[It] seems [that the sky is falling]')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이것은 Chomsky도 예기 *it*와 동사

한 외치 *it*가 지시적(referential)이라고 주장한다. 더 최근에 Quirk *et al.* (1985: 349)이 “예기 *it*가 동일한 문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절에 대해 순행지시(cataphoric reference)를 갖는다는 주장은 논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 *it*가 의미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기술한 것을 보면 그도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받아들인 것 같다.<sup>7)</sup> 마지막으로 예기 *it*가 지시력을 갖는다는 주장은 또한 Downing & Locke(2002: 414)에 의해 부각되었다. 그들은 예기 *it*를 독립된 범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대명사 *it*가 특정 대상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상황, 과정, 사실, 보고나 외치된 주어를 지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예기 *it*가 지시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지금까지 지배적인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한, 아주 단순하고 지극히 선연적인 수준으로 비지시적 분석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조명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비지시적 분석에 어느 정도 체계적인 반론을 제기한 것은 Bolinger(1977: 77-87)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에 따르면 비지시 *it*(그의 용어는 ambient *it*)는 별 의미가 없는 가짜 요소로서 문법적인 구멍을 막는 의미 이상의 최소한 어떤 값(의미치)을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Kaltenböck (2003)는 예기 *it*가 지시력이 있다는 것을 상당한 의미적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한 바 있다. Seppänen *et al.*(1990)이 주장한 비지시적 분석에 대한 반박이 그의 논지의 주류를 형성한다.

다음 절에서는 Kaltenböck(2003)을 포함한 기존의 몇몇 분석에서 제시한 예기 *it*의 지시적 증거를 소개하고 그와 아울러 자연스런 담화에서의 예기 *it*의 사용에 초점을 맞춰 예기 *it*가 지시적 기능을 갖는다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 3. 예기 *it*의 지시적 증거

예기 *it*가 지시력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명확

뒤에 오는 절 사이에 어떤 종류의 의미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7) 그러나 이러한 특성규정은 “외치된 절에서 예기 주어로 나타나는 *it*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주장되어질 수 없다”고 한 이전의 진술과 모순이 된다. 이 진술은 예기 *it*를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비지시 *it*에 더 가까운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실은 예기 *it*의 지시력의 판단이 얼마나 미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다.

한 방법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지시적 분석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곧 지시적 분석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비지시적 분석의 문제를 밝히는 것과 병행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3.1. 등위절 테스트

등위절 테스트는 예기 *it*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예문 (13)/(14) 참조). 그러나 등위절 테스트는 또한 예기 *it*의 지시적 견해를 지지하는, 따라서 Seppäen *et al.*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15) a. I kept driving. *It* was very difficult and [*it was*] clearly too late for us to turn back.  
 b. A: Have you heard of the bank robbery in London?  
     B: Yes, *it's* terrible, and [*it's*] hard to believe they actually got away with it.  
 c. A: Have you heard of his adventure in New Zealand?  
     B: Yes, *it's* really frightening, but [*it's*] good to know it all ended well.

(15a-c)에서, 예기 *it*는 지시 *it*와 등위접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장은 완벽하게 적격하다. 그리하여 이 두 *it*는 지시적 지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sup>8)</sup>

### 3.2. 동명사절의 외치

예기 *it*가 지시를 갖는다는 또 다른 증거로는 동명사의 외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치된 동명사는 *it*-외치와 우측탈구(right-dislocation)의 중간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Kaltenböck, 2003).

---

8) (15b)에 포함된 *it*를 절 선행사를 지시하는 지시적 *it*라고 분명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Seppäen *et al.*이다(cf. Seppäen *et al.*, 1990: 755).

- (16) a. It's a bit of a nuisance to decorate the room.  
 b. It's a bit of a nuisance decorating the room.  
 c. It's a bit of a nuisance the decorating of the room.  
 d. It's a bit of a nuisance the decoration of the room.

Quirk *et al.*(1985: 1393)은 동명사절이 “외치된 진주어와의 유사성 못지않게 명사구와 아주 밀접한 유사성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외치된 동명사절의 이러한 중간적 지위는 또한 Huddleston(1984: 316)이 언급한 바 있는데 그는 “어떤 동명사 구문들이 외치구문으로 허용되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문제에 관해 토박이 화자들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외치된 동명사의 중간적인 지위는 우측 탈구와 *it*-외치간의 명확한 구별을 어렵게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6b)의 예가 *it* 또한, (16c, d)에서 *it*가 우측 탈구된 명사구를 지시한 것처럼, 외치된 동명사를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4.2절 참조).

한편 (16)의 예들은 예기 *it*를 비지시 *it*로 보는 분석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예기 *it*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16a, b)와 (16 c, d)에 있는 *it*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분석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16a, b)의 *it*는 의미가 없는 반면 (16c, d)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를 *it*간의 명백한 의미적 유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 3.3. NP의 외치

NP는 일반적으로 외치될 수 없지만 외치되어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 경우 *it*는 외치된 NP를 지시한다(Huddleston & Pullum, 2002: 1407).

- (17) a. It's extraordinary *the amount of beer he puts away*.  
 b. It impressed me *the way she disarmed him*.  
 c. It's incredible *the things they get up to*.

(17)에서 외치된 NP는 모두 ‘*the + N... + 관계절*’ 형태를 갖는다. 이 NP는 ‘숨겨진 의문문’(concealed questions)의 특별한 유형으로 (18)과 같은 종속의문과 의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 (18) a. how much beer he puts away  
 b. how she disarmed him  
 c. what they get up to

따라서 (17a, b, c)의 외치된 NP를 각각 (18a, b, c)의 종속의문문으로 대체한 결과 만들어지는 *it*-외치문에서 예기 *it*의 지시는 NP를 지시하고 있는 (17)에서의 *it*의 지시와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예기 *it*가 지시력을 갖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 3.4. 외치절의 생략

예기 *it*를 의미를 갖지 않는 가짜 요소로 취급하는 분석방법은 (19)와 같은 문장들을 만족스럽게 다룰 수 없다.

- (19) a. And the second week they were just like (YELL), and so I had to scream at them, all week long. And *it* was really awful, 'cause I felt horrible about it.  
 b. You can't really tell when they blush. *It's* very unusual.

(19a, b)에서 각각의 두 번째 문장은 외치절이 생략된, 그러므로 *it*의 선행사가 외치절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앞에 오는 문맥에 의해 제공된 *it*-외치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sup>9)</sup> 그러나 예기 *it*가 비지시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19a, b)에서 *it*를 일반적인 조용 대명사로 분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19a, b)에서 *it*는 의미 없는 허사로 취급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에서는 (19a, b)에서 두 번째 문장은 더 이상 외치문일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19)의 생략된 외치절과 (20)의 ‘완전한’ *it*-외치문 간의 명백한 유사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 (20) a. And *it* was really awful *that I had to scream at them, all week long.*  
 b. *It's* very unusual *for them to blush.*

---

9) Delahunty(2001)는 (19)와 같은 문장들에 ‘추론구문’(inferential constructions)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생략된 *it*-분열문(clefts)으로 분석한다.

또한 외치절이 생략된 경우, 주어 대명사 *it*는 (19a)의 상황이나 (19b)의 총칭적 사건이나 과정과 같은 이전 담화에서 환기된 실체를 지시하는 것으로도 잘 분석될 수 있다. 그리하여 (21)에서처럼 대명사 *it*는 그러한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완전한 한정구(full definite phrase)에 의해 대체 될 수 있다.

- (21) a. And *the situation* was really awful, 'cause I felt horrible about it.  
 b. *The event of their blushing* is very unusual.

이러한 사실들은 예기 *it*가 지시적 특성을 갖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예기 *it*가 명백하게 의미가 없다는 분석은 *it*-외치문인 (20a, b)와 지시적 *it*인 (19a, b)의 두 번째 문장간의 유사성을 포착할 수 없고, 또한 예컨대 (19a)를 발화했을 때 두 번째 문장 다음에서 약간의 망설임 뒤에 외치절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청자가 그 외치절을 *it*가 지시하는 것으로 재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예기 *it*의 비지시적 분석이 주장한 대로 (19)에서는 *it*가 지시적 특성을 갖고 (20)에서는 비지시적 특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분석 대신 (19)와 (20)에서 *it*는 모두 지시적이고 단지 지시 방향만 달라진다고 기술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Erdmann(1990: 127-28)이 지적 했듯이, 예기 *it* “또한 역행적(anaphoric) 지시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전에 언급된 텍스트의 요소를 *it*가 지시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두 유형의 구문간의 차이는 *it*의 전혀 다른 지위(하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의미가 없다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일 수는 없다.

외치절이 생략된 *it*-외치문과 완전한 *it*-외치문과의 밀접한 유사성은 (22)와 같은 구문들에 의해서도 보여질 수 있다(Kaltenböck, 2003). (22)에서 *it*의 지시는 화자 A에 의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므로 그 외치절이 생략되고) 단지 화자 B의 개입 후에 비로소 더 자세히 명시된다.

- (22) B: You are such a plonker. No, plonker isn't the right word.  
 A: What does *it* matter?  
 B: What does what matter?

A: What does *it* matter *what the right word is?*

(22)와 같은 유형의 구문들은 이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시의 방향’이라는 요인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켜준다. 외치절이 새로 도입된 (22)에서 두 번째 A의 문장의 경우 지시의 방향은 아주 명백하게 순행적이지만 그 대명사가 어떤 이전의 자료와 지시적 관계를 허용하는 외치문의 경우 지시 방향은 역행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순행적 지시가 지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통사적 단위 안에, 그리고 때로는 동일한 음조 단위(tone unit) 안에 대명사와 선행사(즉 외치절)가 공기하기 때문이다.

#### 4. 외치절의 통사적 지위

이 절에서는 외치절의 통사적 지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한다. 이를 위해 외치절과 통사적으로 유사한 구문으로 분석될 수 있는 두 가능성을 비교·검토하고, 외치절이 보충어로서가 아니라 우측탈구된 요소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예기 *it*가 허사가 아니라 의미역 논항으로서 지시력을 갖는다는 주장을 지지해 줄 것이다.

##### 4.1. 보충어(complement)로서 외치절

외치절이 보충어라는 분석은 예기 *it*가 허사라는 가정의 필연적 결과이다. 왜냐하면 만약 *it*가 의미역 논항으로 사용될 수 없다면 모문 동사의 두 번째 논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구성소는 외치절뿐인데, 의미역 할당이 하위법주화 목록에 있는 요소와 술어-논항 구조에 있는 의미역간의 구조 공유에 의해 어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치절이 하위법주화 목록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석 방법은 이론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VP 부가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영어에서 VP 부가어의 기본 위치는 VP 앞이나 뒤이기 때문에 동사와 그것의 보충어 사이에는 올 수 없다.

- (23) a. He often [takes a shower] in summer.  
      b. \*He takes often a shower in summer.

- c. \*He often takes in summer a shower.

만약 외치절이 보충어라면 VP 부가어는 동사 앞이나 하위절 뒤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24) a. It very much [bothers Kim that Sandy snores].  
 b. \*It [bothers Kim that Sandy snores] very much.

그러나 (24b)가 보여 주듯이, VP 부가어가 VP (하위절) 뒤에 오는 경우는 비문이 된다. 뿐만 아니라 VP 앞에 나타나는 (24a)와 같은 경우도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 (25)와 비교할 때 오히려 유표적인 것(marked)으로 간주된다.

- (25) It bothers Kim very much that Sandy snores.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방법은 보충어와 부가어가 VP 내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런 경우 (26)과 같은 비문을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 (26) a. \*He takes often a shower in summer.  
 b. \*It bothers very much Kim that Sandy snores.

보충어 분석의 두 번째 문제는 추출가능성(extractability)과 관련하여 그것이 잘못된 예측을 한다는 점이다. (27a)에서 보듯이 목적절은 주제화(topicalized) 될 수 있지만, (27b)에서 보듯이 외치절은 주제화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외치절이 목적절, 즉 보충어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27) a. That Kim would lose from Jack, nobody had expected.  
 b. \*That Sandy snores, it bothers Kim more and more.

이와 유사한 대조는 주어의 추출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28)에서처럼 보충어로부터 주어를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9)에서 보듯이 외치절의 경우 그러한 추출은 비문을 유발시킨다.

- (28) a. We think John has arrived.  
     b. Who do you think [ \_\_\_\_ has arrived]?  
 (29) a. It is a pity he doesn't know Russian.  
     b. \*Who is it a pity [ \_\_\_\_ doesn't know Russian]?

#### 4.2. 우측탈구(Right Dislocation)로서 외치절

우측탈구의 전형적인 특성은 문장의 오른쪽으로 탈구된 NP가 그것 앞 문장에 있는 [+Pro] (pronominal) NP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oss, 1967). 이 때 탈구된 NP는 대명사 NP와 동일지시를 갖는다(Quirk *et al.*, 1985; Ziv & Grosz, 1994).

- (30) a. I have seen him before, the old man over there.  
     b. \*I have seen him before, the old woman over there.

(30b)는, (30a)와 달리, 탈구된 NP *the old woman over there*가 여성으로서 남성 대명사 *him*과 성(gender)의 자질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지시를 갖지 못하여 비문이 된다. 이러한 동일지시 관련성은 우측탈구가 특별한 유형의 선행사-대명사 관계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Geluykens(1994)는 이 대명사가 우측탈구 요소를 순행적으로 지시한다고 분석한다. 예기 *it*도 (특별한 문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외치절을 순행 지시한다(3절). 이러한 지시관계의 유사성은 *it*-외치구문과 우측탈구 구문간의 첫 번째 유사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우측탈구 요소와 그것과 동일지시를 갖는 목적어 대명사간에는, (30a)에서 보듯이, 국부적 의존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명사 NP가 (31)에서처럼 비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지켜질 필요가 없고, 그리하여 원거리 의존관계(nonlocal dependency)가 형성된다.

- (31) a. She talks too fast, Ruth Kempson.  
     b. They spoke to the janitor about that robbery yesterday, the cops.

예기 *it*와 외치절간에도 원거리 의존관계((32a))나 국부적 의존관계((32b))가 형성된다<sup>10)</sup>는 점에서 우측탈구 구문과 유사하게 분석될 수 있다.

10) Jespersen도 다음과 같은 우측탈구 구문(그의 용어로는 non-restrictive appositive)

- (32) a. *It worries me that he hasn't phoned.*  
 b. *I thought it wise to adopt a low profile.*

셋째, 우측탈구 NP는 반드시 핵어 다음에 와야 한다. 외치절 또한 우측탈구 NP처럼 핵어 다음에 온다. *It*-외치절의 경우 [S + S'] 결합에서 핵어 기능을 하는 것은 S이다. 이것은 그 결합([S + S']) 앞에 보문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33) ... that [it bothers Kim that Sandy snores].

외치된 절(S')은 보문소(that) 바로 다음에 올 수 없고 따라서 핵어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외치절은 항상 문장의 끝부분에 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측탈구 NP가 핵어 다음에 온다는 사실로부터 당연히 귀착되는 것은 탈구된 NP는 오른쪽 끝 부분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외치되어질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11)</sup> 그러한 문장에서 탈구된 NP는 S와 결합된다. 마찬가지로 외치절은 완전히 포화된 투사법주와 결합하고 항상 그 투사법주 뒤에 온다.

넷째, 우측탈구 요소는, (34)가 보여주듯이, 앞에 있는 공백(gap)과 어떤 관계도 형성할 수 없다. (35)는 외치절 또한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34) a. That woman at the cashdesk I heard was sick.  
 b. \*I heard was sick, that woman at the cashdesk.  
 (35) a. That Kevin has left worries Paul.  
 b. \*Worries Paul that Kevin has left.

을 외치구문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He is a clever boy, that Tom Smith. (Jespersen, 1927, § 1.1.)

그가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외치된 낱말들은 문장이 완료된 후에 일종의 나중에 생각나는 것으로서 추가될 수 있다; 그 낱말들은 그 문장 밖에 있고 말하자면 따로 분리된 발화를 형성하여 그 결과 심지어 분리된 문장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Jespersen, 1927, § 17.1.).

11) 우측 끝부분으로의 이동과 외치가능성(extraposability)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Stucky(1987)와 Kathol(1995) 참조.

다섯째, 우측탈구 구문에서 탈구된 요소는 더 일반적인 형태(즉 대명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Geluykens, 1994).

- (36) a. Steve put the beans there, in this cupboard.
- b. Steve likes that, to eat beans.

예컨대, (36b)에서 부정사구 *to eat beans*는 *that*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it*-외치구문에서 외치절은 *it*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한다. *It*는 그 지시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36)의 예는 NP이외에 다른 범주로 탈구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탈구된 요소가 부정사구인 (36b)는 *it*-외치구문과의 표면적 유사성을 더 분명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표기법상의 문제다. 우측 탈구구문에서 탈구된 요소는, 외치구문에서 외치절과는 달리, 휴지(pause)나 콤마(comma)에 의해 주절과 분리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it*-외치구문은 우측탈구와 전혀 다르게 분석되기도 한다(Huddleston & Pullum, 2002). 그러나 Quirk, et al.(1985: 1393)은 (37a)가 실제로 발화될 때 *hostess*가 아니라 *fun*에 주강세가 부여된다는 사실로부터 *fun* 다음에 휴지를 두어야 하고, 글로 나타낼 때는 (37b)(우측 탈구)처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7) a. It's fun being a hostess.
- b. It's fun, being a hostess.

뿐만 아니라 Rothstein(1995)은 특히 *it*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외치절의 경우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외치절이 콤마에 의해 주절과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콤마나 휴지의 유무가 *it*-외치 구문과 우측탈구 구문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요컨대, 외치절이 보충어가 아니라 우측탈구 요소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곧 *it*-외치구문에서 예기 *it*가 외치절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

12) 두 구문이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는 그것들의 담화조건이

## 5. 맷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 문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명백하고 일관된 정의를 하지 못했던 예기 *it*의 통사적, 그리고 지시적(의미적) 지위를 밝히려고 했다. 먼저 예기 *it*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이 논의되었고, 예기 *it*가 의미가 없는 가짜 요소라고 보는 견해는 모두 문맥속에서 예기 *it*의 실제적 사용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기 *it*가 지시 *it*의 지시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우리의 분석은 또한 예기 *it*가 그것이 속한 문맥속에 있는 절 구성소와 지시적 관계(역행적 지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치문의 *it*와 그것에 상응한 우측탈구 구문의 *it*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보였다.

여기서 제안한 분석은 그들과 관련된 문맥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예기 *it*의 예들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따라서 ‘의미’는 독립된 어휘항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문맥적 요인과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단지 개념적 증거에만 의존하여 예기 *it*를 의미가 없다고 규정한 형식론자 접근방법과는 다르다.

### 참고문헌

- Bolinger, D. L. (1977). *Meaning and form*. English Language Series, 11. London: Longman.
- Chafe, W. L.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nnon, R. (1980). Anaphoric *That*: a friend in need. In Kreiman, J. & A. E. Ojada (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Pronouns and Anaphora* (pp. 98–109).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Delahunty, G. (2001). Discourse functions of inferential sentences. *Linguistics*,

---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우측탈구의 경우 탈구된 요소는 구정보(discourse-old)이고 그리하여 이전의 담화로부터 추론이 가능한 반면 외치절은 신정보(discourse-new)로 간주된다. 그러나 외치절이 우측탈구와 동일한 담화정보를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Lambrecht, 1994).

- 39: 517–545.
- Downing, A. & P. Locke (2002). *A University Course in English Grammar*. London: Routledge.
- Emonds, J. (1970). Root and structure preserving transformations. PhD thesis, MIT.
- Erdmann, P. (1990). *Discourse and grammar: focussing and defocussing in English*. (Forschung und Studium, Anglistik 4). Tübingen: Max Niemeyer.
- Geluykens, R. (1994). *The pragmatics of discourse anaphora in English: Evidence from Conversational Repair*. Berlin: Mouton.
- Huddleston, R. (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R. & G.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s III, V, VII. London: Allen & Unwin.
- Kaltenböck, G. (1999). *It-extrapolation and non-extrapolation in English discourse*. In Mair, Ch. & M. Hundt (Eds.), *Corpus linguistics and linguistic theory* (pp. 157–75). Amsterdam and Atlanta: Rodopi.
- Kaltenböck, G. (2003). On the syntactic and semantic status of Anticipatory *it*.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7. 235–255.
- Kathol, A. (1995). Linearization-based German Syntax. PhD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 (1974). Movement rules in functional perspective. *Language*, 50, 630–664.
- Montgomery, M. (1989). Choosing between *that* and *it*. In Fasold, R. & D. Schiffrin (Eds.), *Language Change and Variation* (pp. 241–254). Amsterdam: Benjamins.
- Morgan, J. L. (1968). Some strange aspects of *it*. *Papers from the 4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81–93).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osenbaum, P. S.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 MIT Press.
- Rothstein, S. D. (1995). Pleonas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pronouns. *Linguistic Inquiry*, 26, 499-529.
- Seppänen, A., C. G. Engström & R. Seppänen (1990). On the so-called anticipatory *it*. *Zeitschrift für Phonetik, Sprachwissenschaft und Kommunikationsforschung*, 43, 748-61.
- Stucky, S. (1987). Configurational variation in English: a study of extraposition and related matters. In 'Discontinuous Constituency', number 20 in 'Syntax and Semantics' (pp. 377-404). New York: Academic Press.
- Zandvoort, R. W. (1962).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
- Ziv, Y. & B. Grosz (1994). Right dislocation and attentional state. In *Proceedings of the Ninth Annual Conference and of the Workshop on Discourse* (pp. 184-99). The Israeli Association for Theoretical Linguistics.

이 생근

545-704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99-4

한려대학교 외국어정보관광학과

전화: 016-624-5510

이메일: eredcarrot@krpost.net

Received: 30 Jun, 2005

Revised: 6 Sept, 2005

Accepted: 12 Sept, 2005